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님!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자율과 경쟁, 배려와 관용, 법과 질서를 3대원칙으로 정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신 점에 대하여 더욱더 깊은 감사 드립니다.

우리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충북 북부권, 강원권, 경북 북부권 등을 연계하는 충청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2004년8월, 2005년 6월, 2005년 8월 등 3차례에 걸쳐 건의 하였고
-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 대하여는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건설교통부 방문 및 2007년 5월 국가기간교통망수정 계획 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하여 건의하였습니다.

- 그 결과 2007년 11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2019년 이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의 당위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건의드립니다.

충청북도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부 이전으로 접근성이 증대되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충북북부권, 강원권, 경북북부권은 행정도시와 접근거리가 지역별로 43km~134km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여건이 더욱 불리해져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며

충청권과 강원권에 기 건설된 중부내륙 및 중앙고속도로망 이용시 이용교통의 우회거리가 멀어 충청고속도로 건설시 행정도시로부터 원주시까지 우회거리가 32.1km 감소되고 차세대 국가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갈 오송생명 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충주·원주 기업도시 등 지역 주요거점 연결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충북 북부권, 강원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충청도청을 이용해야 하는 도내 중·북부권(증평, 음성, 충주, 제천, 단양) 도민들이 도청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양을 기점으로 2시간30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많은 주민들은 1시간대 소통이 가능한 서울을 더 가깝게 이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경제적 고충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청도민의 뜻을 모아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 2019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반영된 충청고속도로를 행정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충청도민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심은 물론 새로운 정부의 배려와 관용의 국가경영원칙을 이루시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2월 1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